

아르헨티나 리오넬 메시

프랑스 킬리안 음바페

프랑스, 2-0 모로코 제압 아르헨티나와 결승전 ... 메시·음바페 19일 마지막 승부

프랑스가 모로코를 힘겹게 꺾고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에 진출해 아르헨티나와 우승을 다툰다.

프랑스는 15일(한국시간) 카타르 알코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전에서 전반 테오 에르난데스(AC밀란), 후반 콜로 무아니(프랑크푸르트)의 연속골을 앞세워 모로코에 2-0으로 승리했다.

프랑스는 이제 한 계단만 더 오르면 1998년 프랑스 대회, 2018년 러시아 대회에 이어 통산 3번째 월드컵 우승을 이룬다.

또 1938년 이탈리아, 1962년 대회 브라질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월드컵 2연패를 이루는 나라가 된다.

프랑스는 전날 열린 준결승전에서 크로아티아를 3-0으로 완파하고 올라온 아르헨티나와 19일 0시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우승 트로피를 놓고 다툰다. 지난 10여 년간 최고의 공격수로 군림한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와 신세대 골잡이 중 단연 선두에 있는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이상 파리 생제르맹·PSG)가 정면충돌하게 됐다.

러시아 대회에서 프랑스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음바페는 불과 24살의 나이에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을 눈앞에 뒀다.

19번째 월드컵 경기를 소화한 프랑스 골키퍼 위고 요리스(토트넘)는 마누엘 노이어(독일·바이에른 뮌헨)와 함께 역대 가장 많은 월드컵 경기를 치른 골키퍼로 올라섰다.

대상 감독은 2회 연속으로 월드컵 결승행을 지휘한 역대 4번째 감독이 됐다.

강고한 수비와 톱니바퀴 같은 조직력을 앞세워 아프리카·아랍권 팀으로는 처음으로 8강에 오른 모



로코는 이 기록을 준결승까지 이어온 데에 만족해야 했다.

16강과 8강에서 서유럽의 강팀인 스페인, 포르투갈을 잇달아 격파해 아랍권 팬들의 뜨거운 응원

을 받던 모로코는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히던 프랑스는 넘지 못하고 '위대한 질주'를 멈췄다.

모로코와 크로아티아의 3, 4위 결정전은 18일 0시 도하의 할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킥오프한다.

프랑스는 왼쪽부터 음바페, 올리비에 지루(AC밀란), 우스만 데멜레(FC바르셀로나)를 공격진에 배치해 모로코 골문을 노렸다.

모로코는 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꼽히는, 공격수 하킴 지야시(첼시)-폴백 아슈라프 하킴(PSG)의 오른쪽 라인을 그대로 선발로 내보냈고 최전방에 팀 내 최다 득점자(2골)인 유시프 누사이리(세비아)를 세웠다.

모로코는 전반 5분 만에 실점하고 말았다. 양투안 그리에즈만(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 오른쪽에서 넘긴 킥백을 음바페가 슈팅으로 연결한 것이 상

대 수비를 맞고 골 지역 왼쪽으로 튀자 에르난데스가 왼발 발리슛으로 마무리해 프랑스의 선제골을 뽑았다.

후반전 모로코의 기세는 더 강해졌다. 후반 초반 누사이리가 발판 갖다 대면 득점할 수 있어 보이는 패스가 그에게 연결되기 직전 프랑스 수비수들에게 간발의 차로 걸리는 장면이 거듭 연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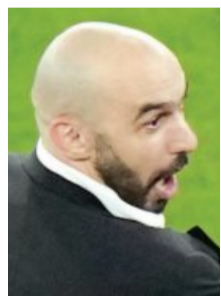
흐름을 바꾼 것은 디디에 데샹 프랑스 감독의 교체 카드였다.

후반 33분 데멜레 대신 그라운드를 밟은 무아니가 투입 1분 만에 쐐기 골을 뽑았다. 초 단위로 따지면 44초 만에 득점했다.

음바페가 골 지역 정면까지 돌파해 들어가 수비수 3명 사이에서 힘겹게 날린 슈팅이 수비 발을 맞고 골대 오른쪽으로 흐르자 무아니가 가볍게 마무리해 2-0을 만들었다. /연합뉴스

“최선 다해 자랑스럽다”

라크라키 모로코 감독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돌풍의 주인공'이 됐던 모로코 축구 대표팀의 월드 라크라키(47·사진) 감독이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준결승 패배 후 소감을 밝혔다.

모로코는 15일(한국시간) 카타르 알코르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4강전에서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에 0-2로 져 탈락했다.

아프리카 국가 최초로 월드컵 4강에 오른 모로코는 18일 0시에 크로아티아와 3-4위전을 치른다.

라크라키 감독은 경기를 마친 뒤 인터뷰에서 “우리 팀에 부상자가 있었지만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로코는 나이프 아게르드가 경기 전 몸을 풀다가 다쳤고, 라우만 사이스와 누사이르 마즈라위는 경기 도중 부상으로 교체됐다.

하지만 ‘부상 핑계’를 대지 않겠다고 말한 라크라키 감독은 “전반에 기술적인 부분에 실수가 있었고, 두 번째 골이 나오면서 승부가 기울었다”며 “그러나 오늘 졌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모로코)가 우리를 자랑스러워하고, 전 세계도 우리 모로코 대표팀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정직하게 싸웠다”고 자평했다.

FIFA 랭킹 22위 모로코는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벨기에(2위)를 2-0으로 꺾으며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한 뒤 스페인(7위), 포르투갈(9위)을 줄줄이 돌려세우고 아프리카 국가 최초로 4강까지 올랐다. /연합뉴스



첫 골의 순간 프랑스의 테오 에르난데스(왼쪽)가 14일(현지시간) 카타르 알코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4강 모로코전 전반 5분에 선제골을 넣고 있다. 프랑스는 모로코를 2-0으로 꺾고 월드컵 2연속 결승전 무대를 밟게 됐다. /연합뉴스

‘월드컵 우승’ 20년 만에 남미냐, 5회 연속 유럽이냐

프랑스가 15일(한국시간) 모로코의 돌풍을 잠재우고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결승에 오르면서 결국 이번 대회 우승국은 남미와 유럽의 자존심 건 대결에서 가려지게 됐다. 그동안 월드컵 우승은 유럽과 남미가 양분해왔다. 2018년 러시아 대회까지 21차례 치러진 월드컵에서 유럽 국가가 12회, 남미 국가가 9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06년 독일 대회까지 남미-유럽 국가 교차 우승이 44년 동안 이어졌다.

그러다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결승에 유럽 국가만 올라 스페인이 독일을 꺾고 우승하면서 이 법칙 아닌 법칙이 깨졌다.

이후에도 유럽 국가가 계속 정상에 차지했다. 이번 카타르 대회 결승에서 아르헨티나가 이기면 남미 국가로는 2002년 브라질 이후 20년 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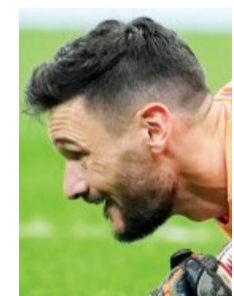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다. 아르헨티나는 1978년 자국 대회와 1986년 멕시코 대회에 이어 36년 만이자 통산 세 번째 월드컵 정상에 선다.

프랑스가 승리하면 유럽 대륙은 5회 연속 세계 축구 챔피언을 배출한다.

프랑스로서는 1998년 자국에서 열린 대회와 2018년 대회에 이어 역시 통산 3번째 월드컵 우승을 이룬다. /연합뉴스

佛 요리스 눈부신 선방쇼

모로코전 무실점 승리 이끌어



프랑스 축구대표팀의 ‘캡틴’이자 베테랑 수문장인 위고 요리스(36·사진)가 선방쇼를 펼쳐 보이며 프랑스의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행에 이바지했다.

프랑스는 15일(한국시간) 카타르 알코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전에서 모로코에 2-0으로 승리했다.

요리스는 이번에도 프랑스의 골키퍼로 선발 출전했다.

프랑스는 전반 5분 만에 테오 에르난데스(AC밀란)가 선제골을 넣어 쉽게 경기를 풀어나가기가 싫었으나 경기 양상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요리스의 선방이 더욱 빛났다.

전반 10분 이쪽인 우나히(양제)가 페널티지역 바깥 왼쪽에서 오른발로 기습적인 감아차기 슈팅을 날렸다. 힘이 강하게 실린 슈팅은 프랑스 골대 가장자리에 꽂히기 직전 왼쪽으로 몸을 날린 요리스의 쪽 뺨은 손에 걸렸다.

요리스의 선방은 또 나왔다. 전반 44분 모로코의 코너킥 상황에서 프랑스 선수 헤더로 높게 뜬 공을 자와드 야미기(바이틀리드)가 그림 같은 오버헤드킥 슈팅으로 연결했다.

이번에도 요리스가 오른쪽으로 몸을 날려 가까스로 슈팅을 쳐냈다.

요리스의 맹활약 덕에 동점 골을 내줄 위기를 여러 차례 모면한 프랑스는 후반 34분 터진 콜로 무아니(프랑크푸르트)의 쐐기 골이 터지고서야 승리를 예감할 수 있었다.

요리스는 경기 뒤 “축구의 전설 중 하나인 메시지를 보유한 팀과 겨우기 위해서는, 모든 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